

ChosunBiz

"코로나로 도시 봉쇄·공장 중단, 중국 초미세먼지 18% 감소"

기사입력 2020-04-13 16:42



코로나19 봉쇄 해제된 우한 기차역 밖 승객들./연합뉴스

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확산을 막기 위해 도시 봉쇄·공장 일부 가동 중단 등 경제활동을 제한한 시기에 중국 내 초미세먼지(PM2.5) 농도가 18%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
13일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(SCMP)에 따르면 중국 생태환경부는 1월 20일~4월 4일 중국 전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전년 동기 대비 18.4% 줄어들었다.

이 시기 공기질지수(AQI)가 100을 밑돌았던 날도 전년 동기대비 7.5% 늘어났다. AQI가 낮을수록 악영향이 적다.

미국 항공우주국(NASA)이 공개한 인공위성 사진에서도 중국 주요 도시 1~2월 이산화질소 배출량은 전년 동기보다 대폭 줄어들었다.

NASA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발한 후베이성 우한(武漢)을 비롯한 중국 동부·중부 지방은 이산화질소 배출량이 기존 대비 10~30% 줄어들었다.

이 시기 중국 경제활동이 중단되면서, 중국 경제계획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~2월 중국의 도로 화물량과 석유제품 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%, 14% 감소했다.

다만 중국이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면 대기오염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.

환경단체인 베이징 공중·환경연구센터 마쥘 주임은 "산업생산이 재개되면 오염물질 배출량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"면서 "코로나가 다시 확산돼 봉쇄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한, 대기 질 개선은 나아지지 않을 것"이라고 전했다.

[장윤서 기자 panda@chosunbiz.com]

[네이버 메인에서 조선비즈 받아보기]

[조선비즈 바로가기]

chosunbiz.com

이 기사 주소 <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etc&oid=366&aid=0000509257>
